

7. 한-미 FTA 5주년. 농식품 분야 수출입 동향

뉴욕지사

주요내용

▶ 국제 교역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, 한미 간 교역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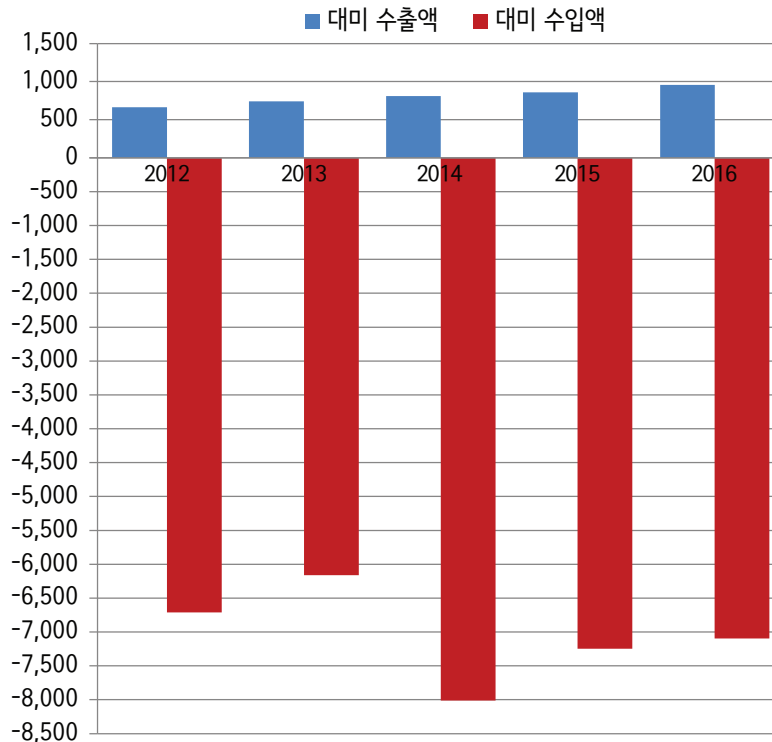
- 한-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올해 5주년을 맞이했다. 최근 국제 교역이 매년 2%씩 감소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교역은 확장되어 지난 5년의 성과에 대해 양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.
- 2016년 한국의 대미 총 수출액은 665억 달러로 2012년 대비 13.6%증가하였으며, 수입은 432억 달러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
▶ 한-미 FTA 발효 이후, 5개년 농식품 무역수지 변화

-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나, 농산물 분야의 경우에는 적자폭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긴 해도 수출대비 수입액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.
- 그러나 2016년 농식품 대미 수출량은 2012년 대비 41% 증가한 309천 톤, 수출액은 44% 증가한 957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

| 5개년 농식품 대미 수출입 추이 |

단위 : 백만 달러



| 대미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액 |

단위 : 천 톤, 백만 달러

연도	대미 수출		대미 수입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
2012	218	664	10,027	6,711
2013	232	740	6,459	6,163
2014	256	811	11,711	8,011
2015	271	859	9,766	7,247
2016	309	957	10,744	7,095

▶ 대미 주요 수출, 수입품목

- 한국 농식품 대미 수출은 가공식품이 그 선두에 있으며 소스, 라면, 인삼, 음료, 배 등이 2012년 대비 가장 큰 수출증가세를 보였다. 특혜관세 적용 및 수출시장 개척 및 홍보 강화가 수출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.
- 한편 대미 주요 수입품목은 사료용 옥수수, 쇠고기, 오렌지, 아몬드 등으로 2012년에 비해 쇠고기, 아몬드의 수입액은 증가하였고, 옥수수는 생산과잉으로 수입물량은 늘었으나 수입액은 하락했다.
- 15년간 관세의 단계적 철폐절차를 밟고 있는 쇠고기와 포도, 체리 등 신선과일의 수입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
| 대미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액 |

단위 : 백만 달러

품목	2012년	2016년	증감율
소스	10	18.6	86%
라면	22.1	35.6	61%
인삼	4.5	7.2	60%
음료	45.7	62.9	37%
배	26.3	29.5	12%

| 대미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액 |

단위 : 백만 달러

품목	2012년	2016년	증감율
쇠고기(냉동)	194.9	400.9	105.60%
아몬드	128.5	174.2	35%
버찌	80.9	109.8	35%
옥수수(사료용)	880.3	690.1	△21%
오렌지	210.8	210	△0.3%

* 출처 : aT KATI, 한국농촌경제연구원, TheHill

시사점

대미 농식품 무역수지는 적자이나,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, 음료 등 새로운 대미 수출품목을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미 수출시장을 꾸준히 공략해야 한다.

미국

America

8. 애너하임 식품박람회에서 본 건강식품 트렌드 Top10

LA지사

주요내용

▶ 애너하임에서 2017년 건강식품박람회 열려

- 지난 3월 10~12일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2017년 Natural Products Expo West (자연건강식품박람회)는 미국은 물론, 유럽, 중국 등 전 세계에서 3,000여 업체가 참여한 대규모 박람회로 앞으로의 건강식품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.



| 즉석 수산식품 |



| 고단백질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|

▶ 10가지 건강식품 트렌드

- 즉석 수산식품: 연어구이, 다양한 맛의 참치캔 등이 건강식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소개되었다.
- 업 사이클 식품: 식품 생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영양가 있는 제품으로 재가공한 창조적인 제품들이 출시되었다.(코코넛 폐기물로 코코넛포(jerky) 제조)
- 야채로 만든 식품: 야채 주스, 야채 스낵 등 야채활용 건강식품에 관심이 높아졌다.
- 버섯 함유: 최근에 버섯이 건강식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 스낵류 뿐만 아니라 음료에도 버섯성분을 함유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.
- 특정 영양식품: Non-GMO, Gluten Free, Low Sodium 등 특성화된 기능성 식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.
- 고단백질 디저트: 고단백질 아이스크림, 쿠키 등 고단백질 디저트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- 곡물: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곡물 및 콩(퀴노아, 치아 등)을 원료로 한 크래커, 빵 등을 선보였다.
- 프로바이오틱스(probiotics) : 스낵, 음료, 땅콩버터 등 유산균 함유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다.
- 기능성 지방: 코코넛에 함유된 중성 지방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커피와 같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함유시킨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다.

- 뇌 영양: choline(콜린), L-Theanine(L-테아닌), Dopamine(도파민) 등과 같은 뇌 기능 활성화에 특화된 성분 함유 음료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.

* 출처 : Food Business News 「Ten trends at Expo West 2017」 (2017.3.10)

시사점

- 앞으로는 단순히 건강식품이라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주목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. 소비자들의 건강 관련 정보수준도 높아졌으며, 다이어트 등 본인들의 수요에 맞는 최적화된 기능성 제품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.
- 따라서 광범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제품별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를 갖고 세분화된 틈새시장(niche market)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.